

# 고대 한·일의 복제(服制) 비교연구

- 3~9세기를 중심으로 -

우 신 영\*(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조 오 순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복제(服制)란 복식(服飾)에 관해 규정한 제도로써 복식제도(服飾制度)를 간략히 말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복제에 관한 역사는 있으며, 이에는 그 시대의 정치·사회·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다.

고대 한·일의 복식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19세기 이후의 비교가 한 편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대 한국과 일본의 복제를 대상으로 정립배경과 변천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복식의 형태·소재·색채 등으로 각 제도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관련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3세기에서 9세기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복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사 및 복식에 관계된 박물관 소장품, 현존 실물자료를 도록 및 서적을 통해 분석한 문헌연구이다.

우리 나라에는 백제-공복제도, 고구려-신분복식, 신라-백관의 의복제도, 통일신라-홍덕왕 복식금제 등이 있고, 일본에는 스이코(推古)-관위12계, 타이카(大化)-7색 13계·19계·26계, 덴무(天武)-조복색에 의한 위계표시 제도, 나라(奈良)-의복령 등이 있다.

양국 복제의 공통점은, 구성이나 복색이 매우 유사하며, 당제(唐制)의 영향을 받았으나, 내용이나 복식품의 규정은 당제보다 간략하였고, 복식에서 이증

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형태는 통수(筒袖)에서 활수(闊袖)로, 궁고(窮袴)에서 대구고(大口袴)로 넓고 길어지는 변화를 보였다.

차이점으로는 복제의 제정시기가 달랐고, 일본은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보였다. 신라 복제에는 무관(武官)복장의 언급과, 예복(禮服)·조복(朝服)의 구별이 없는 반면, 홍덕왕 복식금제에 있는 반비(半臂)·영건(領巾)·화대(靴帶)·소(梳)·채(釵)등에 관한 기제가 일본의 복제에는 없었다. 또 백관의 복색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홍덕왕 복금제에서는 여자복색을 9색으로 제한하였고, 나라 의복령에서는 18색을 허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복제의 제정시기가 삼국과 통일신라가 일본보다 훨씬 앞섰으므로, 우리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신라 사신의 복식이 일본의 복제 개혁에 계기가 되었고, 삼국의 통일 무렵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으므로 타이카와 덴무복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후속연구의 방향은 이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조선시대와 일본의 복제에 대한 비교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Key word : 복제(服制), 상호관련, 당제(唐制), 복제 개혁